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과 마음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고, 찰나찰나 이렇게 헤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량이 좁아서 불편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면 어디인들 어떠리까? 이 모든 게 물질적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한마음이 모두를 행해서 이 현실 물질세계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여러분이 대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하나? 한 철나는 동안에 세세생생에 굴러야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금도 수익 겁을 거처으면서 한 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들어서 잘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어떠한 병고나 닳았다든가, 어떠한 가난이 닳았다든가, 어떠한 소송이 걸려왔다든가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대처할 때 여러분이 제각기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그것을 대처할 수 없고 살아서 나를 볼 줄 모르고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는 오히려 웃을 벗어두고, 죽었다 하더라도 관습에 깎달리는 그 영혼만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모습을 달리 쓰고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무슨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짐승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곤충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독사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이렇다면 그게 바로 차원에 따라서 그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무간 지옥이다 하는 것도 바로 평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게 닳쳐오든지 대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럴 때, 참 생명이 위급하다 할 때,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너무 위급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무(無)의, 무심(無心)으로써 오고 가는 통신이 있어야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통신이 되느냐? 주해신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소임을 맡은 그 보살한테 내가 통신을 하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찰나에 한마음이 되어 건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과 참나와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주해신한테도 통신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땐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건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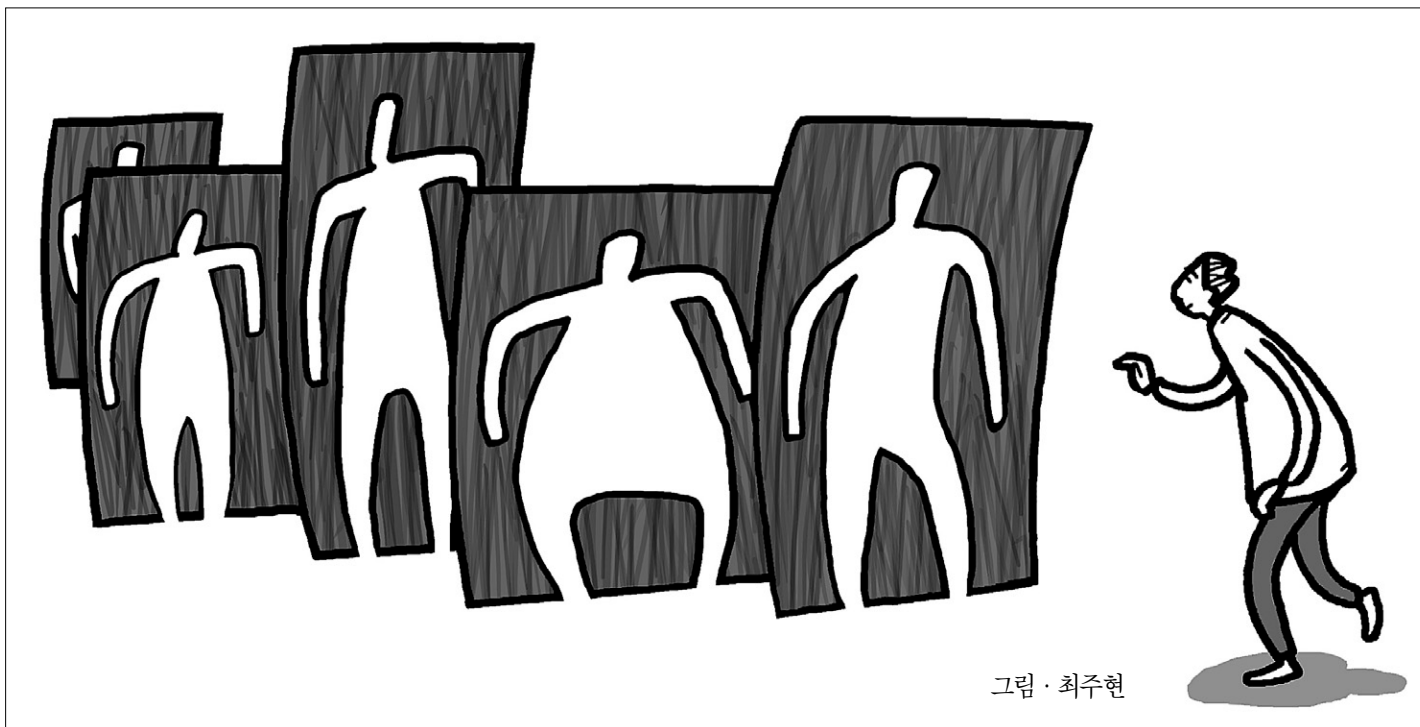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로 방편을 세워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그게, 이름은 그러하지만 진실은 그대로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다가오고 하는 양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그 바다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일러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여건이든지 다 그러합니다. 바다의 소임을 맡은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산에도 주산신(主山神)이 있고 또 풀과 나무 모두를 관리하는 그러한 소임자는 바로 주림신(主林神)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신들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닳친다면 그 신도들이 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각자 여러분께서 그리로 통과가 되어 살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건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한 회사에 회장이 됐으면 회장의 권리가 있어야 공장장 또는 사장 또 부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모두 우리가 위에서 관찰해서 그게 잘 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것을 대처해서 명령을 내려야만, 명령이라고 할 건 없지만 결정을 지어야만 모든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

그렇듯이 이 부처님과 보살, 이 부처님 한생각에서 보살들을 생산시키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을 생산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서 생산체가 벌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전체 삼천대천세계 한가운데 그 법정이 생긴다는 거, 이 건 부처님의 한생각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생산체라고 한다면, 이 생산체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우리 보이는 데는 책이 있고 글자가 있지만, 백지에 글자가 없는 글자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무심권도(無心權道)'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생산체라고 하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기도 하지만 듣기기도 하니 까 이 들이고 내는 데를 '생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떠난 생산체이지 이름이 있는 생산체가 아닙니다. 그 생산체에 모두 서류가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른 쉽게 말해서 70세에 갈 사람이 장부에 한 25세쯤 돼서 갔다, 가려고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보살 때에 '아, 이 사람은 한 70세나 근 살 텐데 어째서 25세가 됐는데 죽어가나?' 하고 검중

을 할 때 바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또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단 얘깁니다. 생각해볼 때 '아, 이거는 어디서 잘못됐구나!' 하고 그 장부를 가지고 오래 봐야만 그게 해결이 난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사처의 그 장부를 보려면 통신이 돼야 되죠. 생사처의 모든 소임자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돌이 아니게 돼야 그 장부를 볼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공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떠나서 내가 한 권리를 갖는다면, 한 생으로 인해서 자유히서 세세생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인생길이 가끔 생각한다면 너무도 참혹할 때가 많거니와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한순간에 돌아옵니다. 부자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으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바뀌면서 변해서 화(化)하고, 화해서 나투면서 이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뜬이 났다 또 벌어졌다 오므라지고, 오므라졌다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도 벌어졌다 한테 붙어지고, 합쳐지고 또 벌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조그만 것만이 아니라 큰 거에서부터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걸로 그렇게 벌어지곤 하죠. 우주의 섭리도 그러하고 은하계의 섭리도 그러하고 모두가, 블랙홀의 섭리가 다 그러한 거니까요.

그래서 또 한 말을 한번 되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꼭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컴퓨터나 뭐 녹음기나 텔레비전이나 또 로케트나 뭐 그냥 별놈의 게 다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자동적인 누진(漏盡)이 있느니라, 자동적인, 자동적인 누진. 바로 세세생생을 이어가는 자동적인 누진. 이거는 인간의 중심, 바로 두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다가 과거를 보려면 꼭 비디오를 되감아서 다시 넣어 봐야 합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그러나 한생각의 머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거를 다 스크린처럼 돌려도 손색이 없이 다 나오니까, 과거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 묘한 법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려면 한번 스크린을 돌려보세요. 마음의 스크린을 얼마나 잘 생각나고 얼마나 잘 보이냐.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찰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그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심성과학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계죠. 광대무변하고 묘한 법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가도 손색이 없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맥의 몸으로는 모두 될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모두, 이 세상 도량을 한꺼번에 쥐고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도리가, 바로 그 녹음해둔 이 두뇌에 있단 얘깁니다. 두뇌 아닌 두뇌지, 또 그것도, 이 물질적인 두뇌에 접해서 그냥 응시해서 있을 뿐이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몸체가 다 죽어도 그

18면으로 계속